



제목	The Sword of Persia: Nader Shah, from Tribal Warrior to Conquering Tyrant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B.Tauris
발행일	2009. 3. 15.
저자	Michael Axworthy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68
ISBN 또는 ISSN	978-1845119829

내용 요약

이 책은 1736~1747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한 아프샤르조의 나테르 샤의 전기이다. 나테르 샤는 18세기 정치적으로 붕괴하던 이란을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켰지만 의심과 탐욕으로 국민들을 억압하여 무자비, 냉소주의, 잔인 등으로 규정되는 국왕이다. 저자에 따르면, “나테르 샤 없는 이란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오스만투르크의 경쟁과 편파 속에서 몰락하는 운명을 겪었을 것”이다. 양치기에서 국왕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의 일대기인 이 책은 이란 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담고 있어서 흥미롭고 유익하다.

1장에 저자는 유럽 세계가 변화하는 시점이라 사파비조가 혼란스러울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파비조의 몰락의 원인을 지배계급의 지도력의 부재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배계급의 포도주 과소비와 하렘에서의 쾌락 추구를 거론하였다. 2장에서는 사파비조의 마지막 국왕인 타흐마스프 2세(Tahmasp II) 치세에 러시아에게 영토를 빼앗기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나테르 샤가 아프가니스탄을 패배시키고, 여러 반란적인 부족을 진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4장에서는 오스만투르크와의 싸움을 통해 국경선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5장과 6장은 쿠데타를 통해 사파비조를 몰락시키고, 아프샤르조를 확립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7장은 무굴제국에 대한 승리, 델피 약탈, 대량학살 등 나테르 샤 업적의 최절정에 이르는 사건들을 서술하였다. 8~10장은 나테르 샤의 정신 건강 악화와 궁정 음모에 대한 집착, 반란을 의심한 장자 구속 등으로 쇠퇴하는 과정, 급기야 1747년 자신의 군인들에게 암살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